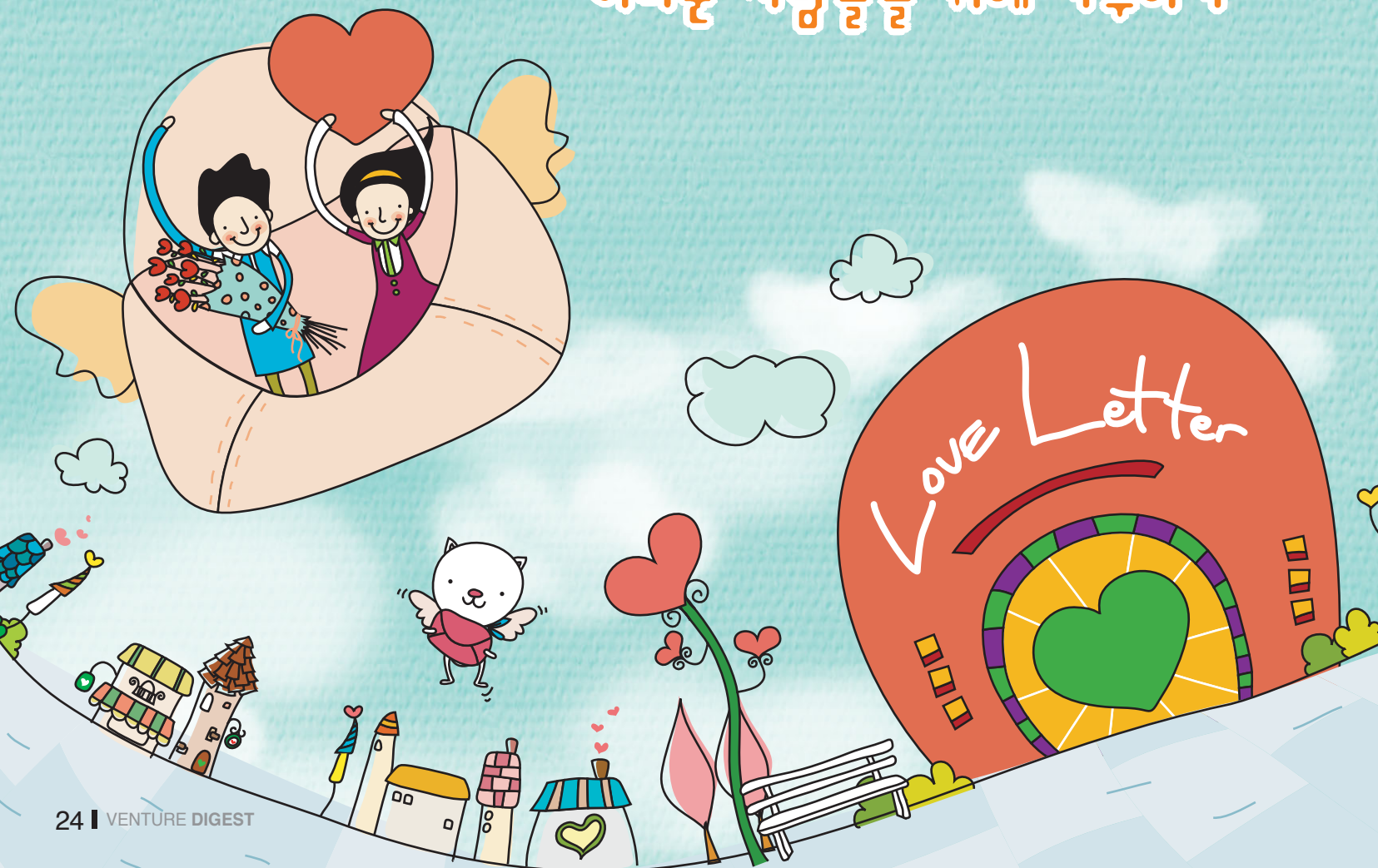


온 국민을 열광케 했던 올림픽도, 매일 이어질 것 같던 더위도 지나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짧은 추석이지만 어느 때 보다 풍성한 마음으로 지내시길 기원하며, 이번 달엔 <나눔과 채움>을 주제로 꾸며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을의 시작 이루시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몇가지 일
'남을 돕는 즐거움 찾기' 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기'





1. 현장에서 온 편지

정용총 /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발을 디딘지 19년이 흘렀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동안 관성과 관행에 매몰되었던 과거의 나를 반성하는 좋은 기회인 거 같아서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관은 아마도 내게 있어 희망과 역동이 용솨솨 치는 공간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가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지난 2001년 8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전치 20주의 진단을 받고 3년에 걸친 수술과 오랜 재활 노력 끝에 지금은 등록장애인이지만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육상 선수생활을 하면서 다져진 건강한 몸이었고, 남들보다 등산을 좋아해 매주 산을 오르던 일상이 어느 날 한 순간의 일로 인해 지금은 산을 오르던 일과거 속 한장의 사진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얻게 된 나의 감정을 통해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워 힘겨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으면서도 진정나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고 가족처럼 사랑을 실천해 왔었는지 자신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지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새로운 현장을 통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이를 통해 기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들로 구성된 산악회 임원과 만났던 때가 떠오릅니다.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장애인이 눈에 자주 띄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장애인은 400만 명 정도이며, 이미 등록장애인 수가 201만 명에 이르고 있어 전체 국민의 4%에 달하고 있다. 나처럼 각종 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중도에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10명중 9명꼴이며, 장애인 중에는 생활불편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재가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곧 민간자원을 통한 지원이 점차 늘어나야 함을 의미한다."라고요. 그 분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산을 좋아하나요?" 라고 물었고 그 물음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그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매월 회식 짝을 이루

장애인과 산행을 가기로 회원들과 의견을 모았고, 우선 5명의 장애인들과 소백산을 산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통해 섬김의 정신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한희망의 메시지를 엿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쁜 직장생활과 일상 속에 묻혀 지낸 시간이 되돌아보면 누구나 가슴 뿌듯한 일보다 후회스럽고 아쉬운 일이 많기 마련입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뛰어들었는데도 왜 쓸쓸한 일들만 기억이 날까? 이런 질문이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면 행복은 아직도 멀까만 느껴지고 가슴은 허하고 외롭기까지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행복은 과연 먼 곳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너무 크고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온 게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우리를 뿌듯하고 환하게 미소 짓도록 만드는 일상의 재미는 아주 가까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까지도 서점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는 중국의 작가 탄자웨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사랑, 우정, 향수,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사람의 향기, 모험심 등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줄 49가지 의미 깊은 일들을 감동적인 이야기와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에세이는 우리가 찾는 행복은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큰 부를 이루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항상 웃을 수 있다는 소중한 지혜를 49가지 이야기를 통해 들려줍니다.

그 가운데 소재목 두 가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스물다섯 번째 할 일, '남을 돕는 즐거움 찾기'와 서른네 번째 할 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기'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나 실천하고 있을까? 스스로 점수를 매겨봅시다.

그 두 가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빠 참여하기 어렵고 막상 참여하려고 하니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평소 직원 동아리모임을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덕적 인성을 심어줄 수도 있고, 직원 각자가 월급우수를 모아 후원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나눔은 곧 우리가 행복을 채울 수 있는 지름길이며 소중한 지혜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jujube@shimbato.com

정용총 관장 _ 평택대학교 및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 수원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의 이해」 및 「자원봉사론」, 「방과후이동지도론」을 공저로 출간했다.



2. 나눔과 채움 ING...

나눔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신다면 나눔과 채움을 도와주는 파트너를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사회복지단체를 소개드립니다.



기업과 사회가 만나는 곳

■ 굿네이버스 www.goodneighbors.org



국내 최초로 UN경제이사회로부터 NGO 최상위지위인 포괄적협의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다. 아동권리보호사업으로 피학대아동지원, 아동학대예방교육, 결식아동지원, 가정위탁지원사업을 하고 이밖에 해외구호개발사업, 북한지원사업, 긴급구호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국내 28개 지부가 활동중이다. 얼마 전 한 벤처기업이 소프트웨어를 후원하기도 했으며 온라인 판매자의 경우 후원숍 계약을 맺어 참여할 수도 있다. 후원숍은 온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 주문하게 되면 상품금액의 일정부분을 각각의 광고주들이 후원하는 제도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www.chest.or.kr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으로 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을 모금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성금을 배분하는 민간의 대표적인 모금기관이다.

공동모금은 개별모금에 비해 효율적인 모금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배분이 가능하며, 모금과 배분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세계 46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동모금제도는 각 국가별로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의 지평을 확대하며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 월드비전 www.worldvision.or.kr



1950년에 미국인 선교사 밥 피어스(Bob Pierce)와 한경직 목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억 명의 사람들을 돕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NGO로 성장했다.

월드비전 한국은 저금통인 ‘사랑의 빵’, ‘기아체험 24시간’ 등의 자체적인 모금활동을 벌여 각국 어린이를 지원하고 전국 11개 지역복지관과 10개의 가정개발센터, 1개의 장애인복지관과 10개의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을 운영한다. 번역, 웹 디자인, 사진촬영, 모니터링, 도시락 배달, 방과후 교실 등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으며 상담을 참여할 수 있다.

기증받은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이웃을 돕는 기아대책가게.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거나 구입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참여도 가능하다.

■ 행복한 나눔 www.givesmart.or.kr



■ 행복한 가게 www.happymall.org



■ 아름다운 가게 www.beautifulstore.org



■ 밥퍼니눔 운동본부
www.baffor.org



밥퍼니눔운동은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이 진정 사람다움을 회복하며 밥 굶는 이 하나 없을 때 까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참사랑 실천과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벌이는 생명운동이다. 20만인 서약 캠페인, 저금통후원, 현장 자원봉사, 홈페이지 베너걸기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미주,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서도 활동 중이다.

■ 1사 1촌 운동



농림부에서 발의한 1사 1촌 운동은 농촌 마을 방문, 체험활동, 농산물 직거래 등 활발한 교류가 전개되면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운동으로 협회에서도 지난 2006년 비트컴퓨터 등 5개 기업이 충청도의 다섯마을과 소중한 인연을 맺기도 했다.

■ 드리미
www.dreame.co.kr



드리미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화환 재사용 문제, 쌀 문제, 결식아동 문제 등을 해결 하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경조쌀보내기운동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경조쌀보내기운동 드리미(dreame)란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각종 경조사에 경조화환을 보낼 때 꽃과 함께 우리 쌀을 보내자는 운동이다.



기업과 기업이 만나는 곳

■ 인크루트와 싸이월드가 함께하는 봉사인증서비스

봉사인증서비스는 싸이월드 봉사인증 내역을 인크루트에 게재한 '내 이력서'에 등록하고, 봉사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다. 봉사인증마크는 자신의 봉사활동내역에 공신력을 부가하는 것. 봉사내역정보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공한다.



새로운 기업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구행한다. 비영리조직인 NGO와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에 있으며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고 의사결정도 주주 이외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3. 참기꺼운 선행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가진 손, 발 그리고 직업이나 재능을 남들과 나눌 때 그리고 나의 작은 행동이 남에게 도움이 됐을 때 느끼는 보람과 기쁨은 내가 한 일의 몇 배로 돌아왔다"고. 나눔은 오히려 행한 사람이 더 많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리눅스의 '오픈소스'라는 발상을 생각한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공개했을 때의 두려움과 공개하지 않았을 때 이윤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 따스한 곳을 찾게 되는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 벤처인 스스로 따스해지길 기대해본다.